

행복을 담아가는 초대전을 축하합니다.

평소 깊은 불심을 바탕으로 군불교 지원 , 자원봉사 , CEO 초청 강연 등의 다양한 신행활동을 전개하는 조계사 직장직능전법단의 초대전을 축하합니다.

특히 이번 초대전이 대한불교조계종이 설립한 공익기부재단 아름다운동행을 후원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이기에 이사장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름다운동행은 2008년 설립 이래 국내외의 많은 분들에게 부처님의 자비나눔을 전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자비나눔은 아름답고 즐거운 길이지만 아름다운동행의 이름처럼 혼자 갈 수 없으며, 함께할 때 향기롭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서 있는 곳에서부터 ‘나’와 같이 ‘남’ 또한 존귀하게 여기고, 우리 가족의 행복이 소중하듯이 이웃의 행복도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의 삶에서 실천해야 합니다. 먼저 내 것을 내어 줄 수 있는 지혜와 실천이 곧 아름다운 동행인 것입니다.

지혜와 자비의 마음으로 함께 손잡고 나아간다면 어려운 환경에 지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나아가 우리 사회가 반목보다는 화해, 미움보다는 사랑, 욕심보다는 나눔을 통해 우리 모두가 행복해지는 지름길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자비나눔의 소중한 정성을 내어주신 최효임 작가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번 초대전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담아가는 귀중한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자리가 있기까지 노력하신 조계사 직장직능전법단원 모두에게 감사를 드리고, 이번 행사가 부처님의 자비하신 광명이 함께하여 원만 회향하길 기원합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 (재)아름다운동행 이사장 자승